

제7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곱번째인 91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1천5백31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우수 2편,佳作 5편, 입선 10편, 장려 30편 등 총 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佳作 4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작

고마운 우유

김미진

제주 추자국민학교 제3학년

제가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때는 제 나이 여섯 살 나던 해로 기억됩니다. 그 때는 우리 식구가 부산에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우유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문만 열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우유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우유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제공하는 젖소들의 고마움과, 젖소를 돌보아 주시는 목부 아저씨들의 노고와, 공장에서 우유를 가공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새벽부터 우유를 배달하시는 아줌마들의 고마움을 알지도 못한 채 우유를 마시는 습관에 길들여진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일곱 살 되던 해 가을에 아빠의 직장이 변경되어 추자도라는 낙도로 이사를 오게된 후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은 이곳에 온 후로 2년이 넘도록 먹고 싶은 우유를 먹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자도는 행정구역 상으로는 제주도 북제주군에 속해있는 섬으로서 하루에 한 번씩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과 아침 저녁으로 1회씩 왕복하는 10인승 헬리콥터가 교통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날씨가 좋지않아 폭풍주의보라도 내리는 날엔 육지로 오가는 발이 묶여 며칠씩이나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바람이 불 때는 가게마다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이 동이나는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산에서 살 때 우유를 마음껏 마시던 시절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를 졸라 댔으나, 그 때마다 섬에서 무슨 우유냐고 야단만 치셨습니다.

저는 우유먹는 것을 포기한 상태로 지내던 어느날 이웃집 수정이 아줌마께서 우유배달을 하실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엄마와 나누는 것을 엿듣고 설레이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우유를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부산에서 살때 우유를
마음껏 마시던 시절이
자꾸 생각나 엄마를 졸
라 댔으나 그때 마다 섬
에서 무슨 우유냐고 야
단만 치셨습니다.
”

그 뒷날부터 며칠동안을 우유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대단히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부산에서 마시던 우유처럼 아무런 생각없이 마시는 친구들은 아마 저의 그때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우유가 배달 되겠지 하고 기다리기가 몇날이 지나 갔으나 우유는 오지 않았습니니다.

참다 못해 우유 배달을 하실려고 하시던 수정이 아줌마네 대문간을 기웃거리려 보았으나 우유는 배달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께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던 우유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에 대하는 우유맛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낙도에서도 이제부터는 우유를 계속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우유를 마실 때마다 우유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우유를 마시게된 동생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1학년 운동회 때는 꼴찌를 도맡았던 동생이 올해는 4등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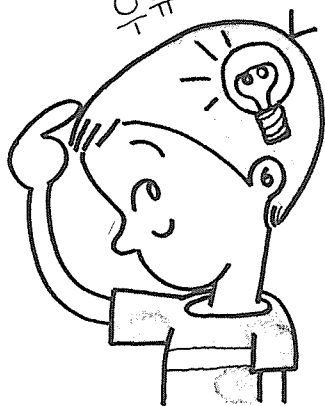
저는 엄마에게 동생이 우유를 계속 마시면 내년에는 1등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는 저보고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더욱 걱정이 노릇을 할려고 우리 가족은 우유가족이 되도록 우유를 2봉지에서 엄마, 아빠 것까지 4봉지로 주문을 늘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께 우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유 2봉지 값을 아끼는 구두쇠가 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아빠의 봉급이 오르면 4봉지로 늘여서 우유가족이 되기로 약속을 해주시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머리를 좋게해주는
우유...



가작

우유공장 사장님

성미영

경기 여주 여주국민학교 5-1

“너희 아빠 직업이 뭐니?”

5학년이 새로 올라온지 며칠 되지 않는날 어김없이 아빠의 직업을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다.

“으응~, 저 말이야 우리 아빠는 그냥 이것저것~”

나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얼버무리면서 그 친구가 다시 묻지 않아주길 고대 했었다.

사실 나는 누가 우리아빠의 직업을 물어보면 괜히 창피해지고 말을 더듬게 된다.

우리집은 여주읍에서 좀 떨어진 시골이고 아빠는 젓소를 20여마리 기르신다. 아빠가 젓소를 기르기 시작하신 것은 한 10년전 쯤 이었던것 같다. 그때는 몰랐는데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늘 작업복 차림으로 지저분한 소똥을 치우시는 우리 아빠가 공무원이나 회사원인 친구의 아빠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빠의 직업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곤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인가를 최근에 알게 되었다.

사회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농업에 이어 축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목축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식생활이 개선되어 고기 및 우유와 유제품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될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축산농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반 미영이 아빠는 매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나는 너무나 놀라서 잠시 어리둥절 했었으나 ‘와’ 하는 친구들의 함성에 괜히 어깨가 들썩거리고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곰곰히 생각에 잠기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한심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늘 우리 세자매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아빠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또 우리에게 맛있는 우유를 선물로 주는 젓소를 너무 푸대접 했던것 같았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먼저 젓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젓소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미안해 젓소야 그동안 너희들을 푸대접한거. 앞으로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잘 먹고 잘 자라서 어서어서 매일 맛있는 우유를 우리에게 주렴.” 방으로 들어간 나는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속삭였다.

“아빠 죄송해요.”

“뭐가?”

“그냥 그렇게 있어요”

“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늘 작업복 차림으로 지저분한 소똥을 치우시는 우리 아빠가 공무원이나 회사원인 친구 아빠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직업 얘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곤 했다.

”

“허허 자식도 싱겁긴-”

나는 다시 생각했다. 앞으로 다시 우리 아빠의 직업을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우리 아빠는 우리들의 몸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우유를 생산해 내는 우유 공장 사장님 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 하겠다고.

가작

고마운 우유

장 호 영

인천부평 북국민학교 2-2

지금 우리집은 아버지, 어머니, 중학교에 다니는 큰누나, 국민학교 6학년인 작은 누나, 그리고 2학년인 나. 이렇게 다섯 식구이다.

우리집은 별로 잘 살지 못 해서 무슨 날이나 돼야 엄마가 우유를 사 주셨다.

다른 친구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도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난 왜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학교에 입학 했는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여 어머니께서는 잘 됐다고 하시며 작은 누나와 내가 두 개씩 신청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큰누나와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는 거다.

그런데 올 해는 우유값도 오르고 학교에서 급식도 안하니 우유 먹기를 또 중단 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우유를 많이 못 사주셔서 항상 마음 아파 하신다.

우리집은 우유먹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아버지께서는 한번에 500ml는 잡수셔야 마신것 같다고 하시며 어머니께서는 항상 미안해 하시지만, 아빠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어렵게 생활을 해 나가자니 어쩔수 없이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께서 직장을 나가시고 생활이 조금 좋아졌는지, 어머니께서 하루에 1000ml씩 배달 우유를 시켜서 우리 식구는 모두 맛있게 먹는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 것만 봐도 좋아하신다.

그리고 학교에 다녀와서 냉장고에 우유가 기다리고 있으니 매일이 즐

“
학교에 다녀와서 냉장고에 우유가 기다리고 있으니 매일이 즐겁다. 역시 우유를 마시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공부도 잘 되는것 같다.
”

겁다.

역시 우유를 마시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다.

시원한 우유 한 잔에 빵까지 곁들여 먹으면, 다른 군것질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점이 많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웬만하면 우리 식구 모두가 좋아하는 우유를 매일 먹게해 주신다고 하시니 엄마가 고맙게 느껴진다.

엄마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난 역시 몸도 튼튼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영영 우유와 이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작

목장주인우리아빠

한윤아

부산 청룡국민학교 6-4

‘들들들들, 탈탈탈탈’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시끄러운 경운기를 타고, 산으로 소에게 줄 풀을 베러갔다. 우리아빠는 목장을 하신다. 나는 풀을 베러 가시는 아빠를 따라, 함께 소에게 먹일 풀을 베러 간다.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기도 하지만, 내게 매일 싱싱한 우유를 주는 우리집 얼룩이 젖소를 생각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빠를 따라 나선다. 풀밭에 닿았다. 아빠는 내게

“천천히, 베어라”

하시며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풀베는 것은 힘들다. 코끝에 땀방울이 송송 맺힐때쯤 나는 풀밭에 벌렁 누웠다. 파아란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 우리집 얼룩이 젖소모양의 구름같다. 젖소를 생각 하노라니 우리아빠의 시커먼 얼굴도 생각났다. 젖소 30마리와 항상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아빠, 그래서 늘 시커먼 우리 아빠, 며칠전 일이 생각났다. 우리 친구들이 너희 아빠직업이 무엇이나고 물어서 목장하신다고 했더니 친구들은 대뜸 손으로 코부터 쥐더니 “아이구, 그럼 냄새가 고약하겠구나”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창피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빠의 까만 얼굴이 떠올랐다. 소를 내뿜처럼 아끼시고 우유를 짜시는 우리아빠! 나는 아빠에게서 한번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가 냄새속에 젖어

“

너희 아빠 직업이 무엇
이냐고 물어서 목장하신
다고 했더니 친구들은
대뜸 코부터 쥐더니 “아
이구, 그럼 냄새가 고약
하겠구나” 하는 것이 아
닌가, 나는 그 순간 얼굴
이 화끈 달아 올랐다.

”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며칠전의 일들에 다시 속이 상해왔다. 햇볕이 내리쬐는 풀밭에서 아빠는 아직도 풀을 베고 계셨다.

“아빠, 쉬었다 하세요”

“응, 그래” 땀을 닦으며 내걸로 오시는 아빠께

“아빠, 아빠는 왜 목장을 하셨어요?”하고 물었다. 아빠는

“윤아에게 싱싱한 우유를 주려고 하지”

하면서 웃으셨다.

“우유가 뭐가 좋은데요? 아빠는 젖소 키운다고 힘만 드시면서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놀리던데요”

하고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졌다. 아빠는 빙그레 웃으시며

“윤아야, 윤아친구들이 젖소의고마움, 우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모양 이구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즈도 다 우유로 만든거란다. 또 너희들은 우유를 잘 마시잖니? 이 우유는 너희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가득 들어 있단다. 사람들이 완전식품이라고들 하지 그러니, 자라나는 너희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야 튼튼히 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학교에서도 우유를 급식하는 거란다. 다음에 친구들에게 잘 말해주렴”

하시고는 또 풀을 베러 가셨다. 구름은 벌써 어디론지 가고 파아란 하늘만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스르르 나는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침일찍 학교에 갔다.

“친구들에게 잘 말해주어야지? 하면서!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유가 모자라서 오늘부터 우유 급식이 안된다고 말씀 하셨다. 그리고 우유가 우리의 자람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아빠가 자랑스러워 졌다. 친구들이 우루루 오더니

“애, 윤이야, 전에 미안했다. 미안해”하는 것이었다.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으쓱해지는 기분 이었다.

“우유급식이 안돼도 나는 싱싱한 우유를 먹을수 있어” 나는 우쭐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디가고 젖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꿈이었다.

아, 이제는 풀을 다베신 아버지가 날 부르신다. 난 달려가 경운기 위에 앉았다. 돌아오는 길에 아빠께 물었다.

“아빠, 우유가 그렇게 몸에 좋아요?”

“아, 그렇고 말고, 우유는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거의 완전식품이거든, 맛도 좋아 간식으로도 좋지, 또 그 담백한 맛을 이용해 치즈등도 만든단다. 흠! 그밖에도…… 이루 말할수가 없단다.

그러니 윤아는 우유 많이 먹어야겠지?”하고 대답과 함께 되물으셨다. 나는 “예” 하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내일 아이들 한테 말해 줘야지’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으시는 아빠의 턱밑으로 흐르시는 땀을 목에걸린 풀문은 수건으로 닦아 드렸다.

